헤세드 사랑은 풍성함을 넘어선 세밀한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따뜻하고 세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이 여기저기 떠돌지 않도록 자신의 밭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소년들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보아스는 세밀한 배려로 룻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세밀한 사랑의 배려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 룻을 기쁘게 했습니다(룻 2:1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어 갈 때, 우리 모두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세심하지만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랑을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쓰는 힘과 다릅니다. 가진 힘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힘을 다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징벌하기 위해 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진 모든 힘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그 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 국적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1년 중추절을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힘 있게 나누어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301, 446, 559장 (중 택1)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그리스도인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드려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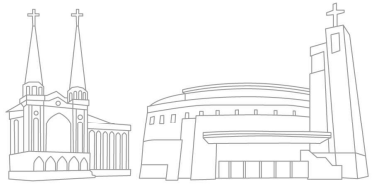
◆◆◆

2 0 2 1

중 추 절 감사예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30:18



명성교회

예 배 순 서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묵　　도 ·····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 304, 384, 589장 (중 택1) ····· **다　같　이**

성 시 교 독 ····· **다　같　이**

인도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회　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도자: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회　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도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회　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리라　　- 아 멘 -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기　　도 ····· **가　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셔서 민족의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지만, 바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올 한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고,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셨으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 멘 -

성 경 봉 독 ····· 룻 2:11-12 ····· **인　도　자**

룻 2:11-12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말　　씀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사랑** ····· **인　도　자**

기근의 시대를 보여주는 룻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갈급한 시대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서 룻기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사기의 마무리에 '그 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룻기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낯선 땅에 와서 남의 밭의 이삭을 주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룻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룻이 자신의 밭에 머물며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먼저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고, 보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풍성한 밭으로 룻을 초청하였습니다.